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이 정 윤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내현적자기애가
분노표현에 미치는 영향
-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 -

2010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심 리 학 과
정 미 라

내현적자기애가
분노표현에 미치는 영향
-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 -

이 정 윤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0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심 리 학 과

정 미 라

인 준 서

정미라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본 연구는 내현적자기애 및 분노표현의 관계를 내면화된 수치심이 매개하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수도권에 위치한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남녀 대학생 381명이었으며, 내현적자기애 척도, 분노표현 척도, 내면화된 수치심 척도를 사용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은 상관분석과 AMOS를 활용한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으로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관분석 결과 내현적자기애는 분노표현과 내면화된 수치심과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있었다. 이때 분노표현의 하위유형 중 순기능에 해당하는 분노조절은 내현적자기애와 내면화된 수치심의 하위유형과는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내현적자기애가 높을수록 내면화된 수치심이 더 높고, 분노억제나 분노표출처럼 역기능적인 분노표현을 많이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둘째, 내현적자기애와 분노표현간의 관계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가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해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내면화된 수치심은 내현적자기애와 분노표현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는 경쟁모형이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내현적자기애가 분노표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하며, 내현적자기애 성향이 내면화된 수치심을 유발하고, 증가된 내면화된 수치심은 다시 역기능적인 분노표현을 유발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주요어: 내현적자기애, 내면화된 수치심, 분노 표현, 매개효과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1

II. 이론적 배경

1. 내현적자기애와 분노표현

- 1) 내현적자기애6
- 2) 분노표현13
- 3) 내현적자기애와 분노표현의 관계16

2. 내현적자기애와 분노표현의 관계에서 수치심의 매개효과

- 1) 수치심18
- 2) 내현적자기애와 수치심의 관계21
- 3) 수치심과 분노표현의 관계23

III. 연구 모형 및 연구 문제

1. 연구 모형25
2. 연구 문제26

IV. 연구 방법

1. 연구대상27
2. 측정도구
 - 1) 내현적자기애28
 - 2) 분노표현29

3) 내면화된 수치심	30
3. 자료분석	31
V. 연구 결과	
1. 주요 변인간의 상관관계	32
2. 구조방정식 모형	35
VI. 논의	
.....	41

참고문헌

ABSTRACT(영문초록)

부 록

표 목 차

<표 1> 자기애성 성격장애의 임상적 특성	10
<표 2>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27
<표 3> 내현적자기애 척도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28
<표 4> 분노표현 척도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29
<표 5> 내면화된 수치심 척도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30
<표 6> 주요 변인간의 상관관계	34
<표 7> 내면화된 수치심 매개모형 적합도 분석결과	37
<표 8> 경쟁모형 경로검증 결과	38
<표 9> 변인들 간의 직접, 간접 효과	40

그림 목 차

<그림 1> 연구모형	25
<그림 2> 경쟁모형	26
<그림 3> 내현적자기애, 내면화된수치심, 분노표현의 완전매개모형	39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대사회는 과거와 달리 개인주의 성향이 점점 강조되고 있다. Lasch(1979)는 이러한 현대 사회를 ‘자기애적 사회’라고 규정하면서 자기애적 특징이 사회문화적 흐름으로 깊숙이 자리 잡고 있음을 이미 지적하였다. 치열한 경쟁 구조 속에서 자신이 가진 개성과 능력을 통해 자신감과 인정을 얻는 것이 현대사회에서 중요한 특징이 된 지금, 개인의 자기애적인 양상은 낮설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미포머(Me-Former)는 미국 러트거스대 연구진이 최근 트위터 사용자 3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만든 신조어로서, ‘나’를 의미하는 ‘미’(Me)와 ‘정보 제공자’라는 뜻의 ‘인포머’(Informer)가 합쳐진 말이다. 미포머족은 자신의 블로거를 통해 자신과 관련된 정보만을 알리는 일에만 열중하는 사람들을 지칭한다. 또 다른 예로 자신에게 중독되었다는 의미의 ‘셀프-홀릭’(self-holic)이나 개인을 위한 경제라는 의미의 ‘에고노미’(egonomy)등의 신조어가 우리 주변에서 뜨거운 문화코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현상들을 볼 때, 자기애는 현대를 살아가는 개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사회분위기와 개인의 자아실현을 요구하는 조직에서 어느 정도의 자기애적 성향은 긴장과 불안에 대처하는 좋은 방법일 수 있고, 개인이 심리적 안녕감을 유지하는데 긍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나친 자기애적 성향은 개인에게 깊은 심리적 고통을 겪게 하고 더 나아가 사회적응에도 어려움을 줄 수 있다.

Kernberg(1975)는 자기애적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자존감이 높으면서도 외부의 칭찬에 의존적이어서 타인의 주의와 존경을 바라는 ‘자기애적 모

순' (narcissistic paradox)이 나타난다고 보았다. 이러한 자기애적 모순은 자기애 성향자로 하여금 심리·사회적 부적응을 일으킬 수 있고, 많은 선행연구들이 이 사실을 지지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자기애적 모순을 가진 자기애 성향자들은 자신에 대한 웅대한 표상을 가지고 있어 타인의 부정적인 평가에 과민하게 반응하여 분노와 보복 행동을 보인다(Bushman & Baumeister, 1998). 이를 가리켜 Kernberg(1975)는 '자기애적 분노' (narcissitic rage)라고 하였으며, 이것은 반복적이고 만성적으로 강한 분노 반응을 보이면서 무례한 요구와 비하적인 공격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자기애를 이해하는데 분노를 주목하는 이유는, 분노가 자기애 성향자의 취약한 자기개념을 보호하려는 시도가 외현적으로 드러나는 과정이고, 그들의 자기보호전략을 실제생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이준득, 2004). 게다가 분노를 어떻게 적절하게 표현하느냐는 대인관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서현숙, 2005). 즉 분노를 표현하는 방식에 따라 타인과의 관계에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노세진, 2008). 분노표현 양식은 분노표출, 분노억제, 분노조절로 구분되는데, 분노조절은 순기능적인 분노표현인 반면에, 분노표출과 분노억제는 역기능적인 분노표현으로 분류된다(Spielberger, 1985). 적절한 분노표출은 상대방에게 잘못을 알게 하여 관계를 개선시키는 적응적인 면도 있지만, 과도할 경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반사회적 행동을 유발시키거나 공격적인 행동과 적대감을 일으켜 문제해결을 방해하고(노세진, 2008), 대인관계를 손상시킬 수 있다(고윤경, 2007). 또 다른 역기능적 분노표현인 분노억제는 분노를 자기 내부로 돌리거나 분노감정을 억압하거나 부정하는 것으로 우울감과 편집증(이훈진, 2000), 절망감(Cautin & Overholser, 2001), 섭식장애와 같은 심리적인 문제를 심화시키고, 자살의 위험성과도 연관되어 있다(Cautin et al, 2001; Zaitsoff, Geller, & Srikaneswaran, 2002).

최근의 연구들에서는 이러한 자기애를 현상적 관찰에 따라 내현적자기애와 외현적자기애의 두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Akhtar & thomson, 1982; Cooper

& Ronningstam, 1992; Wink, 1991). Cooper(1998)에 따르면 외현적자기애의 경우 경탄을 요구하고 웅대성을 과시하고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하는 방식으로 취약한 자기를 보호하는 반면에, 내현적자기애는 가능한 비판과 비난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비난의 단서가 없는지 타인의 의견에 주의 깊게 경청하고, 확인을 피하는 방식으로 취약한 자기를 보호한다(권은미, 2006에서 재인용). 1980년대 이후 최근의 연구들은 병리의 정도에 있어서, 내현적자기애가 외현적자기애 보다 더 부적응적이고 역기능적이라는 증거들을 제시하고 있다(신희천, 2007에서 재인용). Raskin과 Novacek(1989)은 외현적자기애자들이 보다 적극적이고, 외향적이며, 경험-추구적이고, 자신감이 있고, 리더쉽을 갖는 특성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Rose(2002)는 외현적자기애 유형이 만성적인 자기 고양으로부터 이득을 얻기 때문에 심리적 안녕감이 높은 반면, 자신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는 깊은 불안정성을 지닌 내현적자기애 유형은 심리적 안녕감이 낮다는 연구결과를 얻었다. 따라서 내현적자기애는 외현적자기애보다 자존감이 낮고 우울하고 불안하며 타인의 평가에 지나치게 민감하여 쉽게 회피하거나 억제하는 반응을 보임으로써 주관적인 불편감이 훨씬 클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자기애성 성격은 성격 및 사회심리학에서 개인이 갖는 독특한 성격특질의 관점에서 주로 연구되고 있고, 구체적인 임상 및 상담적인 접근은 미약한 편이다. 더욱이 세분화된 자기애 유형들이 등장하여 연구할 영역이 넓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는 드물다. 따라서 더 나은 진단 분류와 치료적 접근을 개발하기 위해 자기애성 성격장애에 대한 더 많은 탐색이 요구되며, 특히 자기애의 두 유형 중, 기존 선행 연구들을 통해 더 역기능적이고 심리적으로 더 취약하다고 보고된 내현적자기애에 주목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자기애가 여러 이질적인 특성들이 함축된 상당히 포괄적인 개념(길주현, 오경자, 2008)이라는 점과 자기애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이 주로 자기애와 적응/부적응 간의 관련성을 밝히는 데 초점을 두었을 뿐, 무엇이 자

기애와 부적응을 매개하는가에 대한 연구들은 아직까지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자기애와 분노를 직접적인 인과관계로 설명하는 것 보다 그 사이에 또 다른 정서적 취약요인을 가정하는 것이 자기애와 분노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보다 설득력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험적 연구를 바탕으로, 내현적자기애와 분노표현의 관계의 정교함을 더 하기위해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역할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였다.

내면화된 수치심이 자기애 발달에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은 현재까지 경험적 연구들에 의해서 지지되었고(Gramzow & Tangney, 1992), 자기애와 수치심 취약성 간의 연결성은 여러 임상가와 이론가들에 의해 제안되어 왔다(Kernberg, 1970; Kohut, 1971; Kohut, 1977; Morrison, 1983). 특히 Morrison(1983)은 자기애적 성격에 있어서 수치심은 실패와 결점에 대한 정서적 반응이라고 정의하면서, 수치심의 이면에는 타인간의 관계에서 인정과 수용을 받고 칭송 받고 싶은 개인의 자기애적 욕구가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러한 자기애적 욕구가 좌절되었을 때 수치심의 정서경험이 유발된다고 하였다. 한혜림(2004)은 외현적자기애 경향성이 높을수록 수치심은 낮았지만, 내현적자기애 경향성이 높을수록 수치심 경향성은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내현적자기애 성향자들이 자기애적 욕구가 좌절되는 상황에서 자신이 더욱 부적절하며 우스꽝스럽다는 수치심의 감정을 쉽게 경험하고, 약간의 좌절과 타인의 평가에도 자기 가치감이 쉽게 동요되는 취약성을 보인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또한 내면화된 수치심 척도의 타당화 연구(이인숙 외, 2005)에서, 수치심이 내현적 자기애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자기애와 우울의 관계에서 수치심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연구에서도 내현적자기애 성향을 가진 개인이 수치심을 더 많이 경험하고 이러한 수치심이 우울과 같은 취약요인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였다(곽진영, 2009).

또한 수치심과 분노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수치심을 느끼는 개인은 자신이 작고 무기력하며 유치하다고 느끼게 되면서, 초기에 자신에

게 향하던 적대감을 타인에게로 돌리게 된다고 한다(Lewis, 1971). 즉, 자신에게 향하던 적대감이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향하게 되어 타인에게 적대감을 품게 되는 방식의 방어적 기제로 작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해주는 국내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장진아(2006)는 여성의 수치심이 높을수록 분노가 높아진다고 하였으며, 수치심과 분노가 정적 상관을 보였다고 보고한 류설영(1999)과 김현주(2009)의 연구결과는 수치심이 분노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지지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 연구들을 토대로, 내현적자기애가 분노표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이 매개 효과를 지닐 것으로 가정하고 이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대로 수치심의 매개효과가 검증된다면, 내현적자기애가 분노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분노의 발생 기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될 것이며, 나아가 내현적자기애로부터 비롯된 분노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심리정서적문제를 해결하는데 보다 효과적인 치료적 개입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II. 이론적 배경

1. 내현적자기애와 분노표현

1) 내현적자기애

그리스 신화에서 유래된 자기애(Narcissism)는 자기-과장적이고 자기-몰두적인 성격 유형을 묘사하는 개념으로, 1898년에 심리학자 H. Ellis가 한 남자의 자기성애(auto-eroticism)를 설명하는데 'Narcissus-like' 라고 빗대어 표현함으로써, 심리학적 문헌에 처음 인용되었다(나승은, 2009). Freud(1953)는 그의 저서 'On Narcissism'에서 '자기애란 심리적 에너지가 자신에게로 향해져 자신의 신체를 성적인 대상으로 취급하는 태도' 라고 정의 내리면서 자기애의 특성 대해 처음으로 개념화하였고, 그의 임상적 사고에서 중요한 구성개념으로 삼았으며, 오늘날까지 임상장면이나 성격심리학 분야에서 자기애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 되었다.

자기애에 대한 연구가 최근 활발해지면서 그 개념에 대한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긴 했지만 수많은 논의와 경험적 연구에도 불구하고 자기애라는 개념은 명확하게 정의 내려지지 않았다. 자기애적 현상의 범위와 양상, 기저의 심리적 기제, 발달과정 등에 대해 이론가마다 약간씩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경험적 연구들에서도 포괄하는 자기애적 현상에 따라 조작적 정의를 달리 하고 있다(박세란, 2004). 따라서 자기애를 연구함에 있어 각 이론이 취하고 있는 입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신분석적 이론에서 Freud(1914)는 자기애를 두 가지 형태 즉, 일차적 자기애와 이차적 자기애로 구분하였다. 그는 자기애를 미분화된 심적 에너지가 자아에 부착되는 것이라고 보았고, 이 상태를 '일차적인 자기애'(primary

narcissism)라고 하였다. 일차적 자기애는 유아가 경험하는 정상적인 상태로 서, 양육자의 애정과 보살핌 속에서 자신이 매우 중요한 존재라고 느끼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때 이 에너지의 일부는 대상에게 부착되었다가 다시 자아로 돌아오는데 이 상태를 ‘이차적 자기애’ (secondary narcissism)라고 한다. 이때 유아는 자신과 외부 세계를 점차 분명하게 구분하게 되면서 대상애(object-love)를 형성한다. 즉, 이차적 자기애를 통해 유아는 타인에게 사랑과 관심을 쏟고 타인으로부터 사랑을 받음으로써 상호적인 성숙한 자기애를 발달시킨다. 그러나 성인이 된 이후에도 일차적 자기애에 고착되어 심적 에너지가 자신에게 집중될 때 이를 병리적 자기애라고 한다. 자기애적 성격장애자들의 특징에 대하여 Freud(1953)는, 그들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에 대해 직접적이고 주된 관심을 보이고, 타인에 대해 개방적이지 못하며, 자신의 실패에 대해 강한 공격성을 보인다고 묘사하였다. 즉, Freud는 자기애적 성격을 정상적인 발달의 최고 단계인 대상애를 발달시키지 못하는 성격장애로 보았고(이만홍, 1988), 공격성(aggression), 타인에 대한 평가절하(devaluation), 우울감, 분리(splitting)의 방어과정이 자기애적 성격장애의 주요한 특징이라고 보았다(위혜정, 2008).

자기애적인 자기(self)가 병리적인 구조라고 제시한 Kernberg(1975)는 어린 아이가 주 양육자로부터 지속적으로 이해와 공감을 받지 못하고 냉정하고 애정결핍적인 양육을 받게 되면 자기애적인 사람으로 성장한다고 보았다. 사랑받지 못하고 스스로가 나쁜 사람이라고 느끼게 된 아이는 자신의 분노를 부모에게 투사하여 부모를 훨씬 더 가혹적이고 박탈적인 존재로 지각하게 된다. 이때 아이의 유일한 방어는 부모가 가치를 두는 자신의 측면을 찾는 것이고 여기서 웅대한 자기상(grandiose self-image)을 형성하게 된다. 이것은 아이가 부모로부터 인정받는 측면들, 자신의 좌절을 보상해주고 분노와 질투의 감정을 방어하기 위해 스스로에 대해 상상해 둔 자신의 모습 그리고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자신을 사랑해주는 따뜻한 양육자의 모습, 이 세 가지가 용해

(fusion)되어 만들어진다. Kernberg(1975)는 자기애적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자존감이 높으면서도 외부의 칭찬에 의존적이어서 타인의 주의와 존경을 바라는 ‘자기애적 모순(narcissistic paradox)’ 이 나타난다고 보았고, 이들이 피상적으로 적응적인 행동을 보일 수도 있지만, 내적 세계는 병리적이고, 타인을 공감하는 능력이 부족하며, 자기애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못할 때 지루함과 공허감을 느낀다고 하였다. 또한 그들의 타인에 대한 이상화는 분노, 질투, 경멸, 평가절하 등의 부정적인 감정에 대한 방어로 나타나며, 자기애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대상은 이상화하지만, 그렇지 않은 대상은 경멸하고 평가 절하하는 특징을 보인다고 하였다.

반면 Kohut(1971)의 자기심리학에서는, 유아가 취약한 자기를 보호하고자 거대한 자기상과 이상화된 부모상에 집착하게 된다고 하였다. 또 자기애의 영역과 대상애의 영역 모두에서 발달이 지속된다는 이른바 두 축 이론(double axis image)을 제안하였다. 이 이론에서 두 가지 축은 '웅대한 자기'(grandiose self)와 '이상화된 부모상'(idealized parental image)으로, 대략 5~7세경에 이 두 축이 합쳐져 통합된 자기를 형성한다. 이때 아이의 욕구에 대해 부모가 적당한 공감과 양육을 하고, 시기적절한 공감 실패와 좌절을 제공하면 적절히 ‘이상화된 부모상’을 얻게 되는데, 이것은 아이의 초자아가 융통성 있게 기능하도록 해주고 목표와 이상이라는 삶의 방향성을 가지도록 도와준다. 또한 ‘적절하게 좌절된 거대자기’는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한 야망으로 이어져 삶을 살아갈 에너지로 역할하게 된다. 그러나 부모가 적절한 이상화 모델이 되지 못하는 고착상태가 되면 아동은 이상화할 수 있는 새로운 자기대상(self-object)을 찾는다. 그럼으로써 주변 사람들을 독립된 개인이 아니라, 자신의 자기애적 욕구를 충족시켜줄 대상으로 간주하게 된다. 그는 자기애를 발달상의 병리적 이탈로 보기보다는 그 자체로서 정상적 발달과정을 거치는 리비도의 한 형태로 보았는데, 이러한 관점은 Freud나 Kernberg의 이론과 차이를 보인다(강선희, 2002). Kohut은 자기애적 성격장애자들에 대한

진단적인 관점을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자기에적 현상을 기술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심각한 분노 반응이 주된 특징이라 기술하였다(박세란, 2004).

자기에에 대한 경험적인 관심이 증대되면서, DSM-III(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80)에서도 자기에성 성격 장애(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를 포함하기 시작했다. DSM-IV에 나타나 있는 자기에성 성격장애의 진단 준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자신의 중요성에 대한 과장된 지각을 가지고 있다. (2) 끝이 없는 성공에 대한 공상과 권력, 탁월함, 아름다움, 또는 이상적인 사랑에 대한 공상에 자주 사로잡힌다. (3) 자신이 특별하고, 독특하다고 믿고, 특별한 사람이나 상류층의 사람들만이 자신을 이해할 수 있고, 또한 그런 사람들(혹은 기관)하고만 어울려야 한다고 믿는다. (4) 과도한 찬사를 요구한다. (5) 특권의식을 가진다. (6) 대인관계가 착취적이다. (7) 감정이입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 타인들의 감정이나 요구를 인정하거나 확인하려 하지 않는다. (8) 자주 타인들을 질투하거나 타인들이 자신에 대해 질투하고 있다고 믿는다. (9) 거만하고 방자한 행동이나 태도를 보인다(이군자, 2009에서 재인용).

그러나 DSM-IV에 제시된 자기에성 성격장애는 Kernberg(1975)가 기술한 특성에 따라 공격적이고, 외향화된 측면을 주로 강조하여 정의내리고 있다. 하지만 많은 임상가들은 DSM-IV에 제시된 자기에와 표면적으로 다른 특성을 보이지만 유사한 역동과 정서, 인지적 특성을 지닌 자기에적 병리가 존재한다는 것에 주목해 왔으며, 현상적 관찰에 따라 자기에를 두 유형으로 구분하였다(Akhtar & Thomson, 1982; Cooper & Ronningstam, 1992; Wink, 1991). 특히 외현적자기에와 내현적자기에로 구분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Kohut, 1971, 1977), 이는 일부 경험적 연구에서도 지지되었다(Hendin & Cheek, 1997; Rathvon & Holmstrom, 1996; Wink, 1991).

Akhtar와 Thomson(1982)은 자기개념, 대인관계, 사회적 적응, 윤리와 규범

과 이상, 사랑과 성, 인지적 스타일 등 여섯 가지 기능영역에서 두 자기에 유형의 특성을 구분하여 기술하였다. 그 기술적 특징을 요약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자기애성 성격장애의 임상적 특성(이군자, 2009에서 재인용)

	외현적 자기애	내현적 자기애
자기개념	고양된 자기존중, 거만한 웅대성, 부, 권력 미, 영민함에 대한 환상들, 특권의식, 자신이 취약하지 않다는 착각	비판과 현실적 좌절에 대한 민감성, 열등감, 무가치감, 취약함, 힘과 명예에 대한 끊임없는 추구
대인관계	피상적인 인간관계, 타인에 대한 멸시와 평가 절하하는 경향, 종종 '화려한 고립'으로 철수	타인에 대한 만성적인 이상화와 강한 시기심, 칭찬에 대한 강한 갈망
사회적 적응	사회적 성공, 거짓 승화, 강한 야심	만성적인 지루함, 불확실성, 직업적이고 사회적인 정체성에 대한 불만족
윤리와 규범 및 이상	겉으로는 도덕적, 사회정치적, 심미적 문제들에 대한 열성을 보임	진실된 관여가 부족하고 양심도 타락하기 쉬움, 호의를 얻기 위해 쉽게 가치를 바꿈
사랑과 성	결혼 불안정, 유혹적, 문란한 성생활, 성적 억제 부족, 자주 사랑에 빠짐	사랑을 지속시키지 못함, 사랑의 대상을 분리된 별개의 개인으로 보지 못하고 자기의 연장으로 취급, 성도착적인 환상이나 이따금 성적일탈을 보임
인지양식	현실을 자기중심적으로 지각, 명확하고 웅변적인 말투, 때때로 혼잣말을 하는 것처럼 우월적이고 모호, 논쟁에서 회피적이지만 논리적으로는 일관된 주장	사건의 객관적인 측면에 주의를 덜 기울임, 기억에 공백이 있기도함, 과도하게 추상적이었다가 구체적이기를 반복, 자존감이 위협당했을 때 현실의 의미를 변경하는 경향

한편 Cooper(1998)는 두 가지 자기애 유형이 공통된 역동을 지니면서도 서로 다른 현상학적인 모습을 보이는 이유가 손상된 자기표상을 복구하기 위하여 취하는 방어의 형태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Cooper(1998)에 따르면, 외현적자기애는 경탄을 요구하고 웅대성을 과시하고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하는 방식으로 취약한 자기를 보호하는 반면에, 내현적자기애는 가능한 비판과 비난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비난의 단서가 없는지 타인이 의견에 주의 깊게 경청하고, 확언을 피하는 방식으로 취약한 자기를 보호한다(권은미, 2006에서 재인용).

이처럼 내현적자기애와 외현적자기애가 자기표상을 복구하기 위해 취하는 방어의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적응 및 병리의 양상 또한 다르다. 1980년대 이후 최근의 연구들은 병리의 정도에 있어서는 내현적자기애가 외현적자기애 보다 더 부적응적이고 역기능적이라는 증거들을 제시하고 있다(신희천, 2007에서 재인용).

예컨대, Raskin과 Novacek(1989)은 외현적자기애자들이 보다 적극적이고, 외향적이며, 경험-추구적이고, 자신감이 있고, 리더쉽을 갖는 특성을 보인다고 보고하였으며, Rose(2002)는 외현적자기애 유형이 만성적인 자기고양으로부터 이득을 얻기 때문에 심리적 안녕감이 높은 반면, 자신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는 깊은 불안정성을 지닌 내현적자기애 유형은 심리적 안녕감이 낮다는 연구결과를 얻었다. 또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내현적자기애 유형이 자존감이 낮고 자기개념과 자기평가가 부정적이었으며 우울과 정적관계를 보였고(박세란, 2005),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서 자존감을 유지시키기 위해 타인비하적인 자동적 사고를 더 많이 한다고 보고하였다(이준득, 2004). 뿐만 아니라 진로미결정이나 시험불안과 관련된 연구들(최인희, 2005; 이춘희, 2007)에서는 내현적자기애 유형이 학업 상황에서 더욱 부적응적인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따라서 내현적자기애는 외현적자기애보다 자존감이 낮고 우울하고 불안하며

타인의 평가에 지나치게 민감하여 쉽게 회피하거나 억제하는 반응을 보임으로써 주관적인 불편감이 훨씬 클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두 유형의 자기에중 내현적자기애 유형에 주목하여 연구하고자 하였다.

2) 분노표현

최근 일부 학자들로부터 분노장애라는 진단명이 새롭게 제안될 정도로 분노는 정신 병리의 주요한 증상으로 주목받고 있다(서수균, 2004). 분노란 스트레스에 대한 생리적 반응이며, 위협한 상황이 닥쳤을 때 생리적으로 일어나는 신체반응으로서 이때 느끼는 분노는 신체로 하여금 조절감을 유발시켜 상황에 대처하도록 작용한다(Novaco, 1979). 분노는 인간이 경험하는 가장 대표적이고 핵심적인 정서이자 정서적 스트레스이며(전경구, 2000), 위협이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감정으로, 그 감정 자체가 좋거나 나쁜 것은 아니다(서수균, 2004). 그러나 우리나라 문화에서 분노는 해결해야 할 정서라기보다는 오히려 억제해야 할 정서로 인식되어 개인의 분노의 원인을 파악하여 건강하게 해결하려는 노력에는 소극적인 편이다.

이전의 많은 연구들에서는 분노감, 적대감, 공격행동이 엄격히 구분되지 않고 애매하게 정의되고 비일관되게 개념화되어 최근 여러 학자들에 의해 그 각각의 개념들이 다시 정의되기 시작하였다. Spielberger 등(1985)은 분노를 미미한 짜증 혹은 곤혹감으로부터 강한 격분이나 격노에 이르는 정의적, 인지적, 운동적, 언어적 요소간의 상호작용을 포함하는 내적 상태로 보았다. Buss와 Perry(1992)는 분노감을 공격을 위한 생리적 각성과 준비성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적대감은 부정적이고 냉소적인 방식으로 타인이나 세상을 보는 태도로 흔히 공격적인 행동을 동기화시킨다(Buss & Perry, 1992). 공격행동은 타인에게 해를 입히려는 의도적인 행동으로 정의되며, 타인에게 해를 입히는 것 외에 다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공격행동은 수단적(instrumental) 공격행동으로 분류되며, 순전히 타인을 괴롭히기 위한 파괴적인 행동은 정서적(혹은 적대적) 공격행동으로 분류된다(Berkowitz, 1993). 다시 말하면, 분노는 생리적, 인지적, 현상학적, 행동적인 요인들로 구성된 다차원적인 개념(Eckhardt, Norlander & Deffenbacher, 2004)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분노감(anger), 적대감

(hostility), 공격행동(aggression)은 일부 학자들에 의해 AHA증후군이라고 일컬어져 서로 밀접히 관련된 개념들로 이해되어 왔다(Spielberger, Johnson, Russell, Crane, Jacobs, & Worden, 1985). 여기서 분노감은 정서(affect)에 해당되고, 공격성은 행동(behavior), 적대감은 인지(cognition)에 해당된다고 해서 ‘ABC’ 모델이라고 일컬어진다(Martin, Watson & Wan, 2000).

Spielberger 등(1985)은 분노를 상태분노와 특성분노(분노경험수준)로 구분하였다. 상태분노는 분노 유발상황에서 나타나는 즉각적인 반응으로 일시적인 정서 상태이다. 특성분노는 얼마나 자주 분노를 일으키는가를 보이는 개인의 분노 경향으로 상태분노를 일으킬 수 있는 개인의 성향이다. 즉, 특성분노가 높은 사람은 분노 유발상황에서 분노를 강하게 지각하는 성격특성을 가지고 있고, 특성분노가 낮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분노를 약하게 지각하는 성격특성을 가지고 있다(김소연, 1998). 또한 분노표현양식은 분노표출, 분노억제, 분노조절로 구분된다(Spielberger, 1985). 여기서 분노조절은 순기능적인 분노표현인 반면에, 분노표출과 분노억제는 역기능적인 분노표현으로 분류된다. 분노조절은 화가 난 상태를 지각하고 감독하면서 화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책략을 구사하는 것으로 냉정을 유지하고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그 예이다. 분노표출은 화가 나면 이를 걸음으로 드러내는 것으로 자신의 분노를 환경 속의 타인이나 대상에게 나타내는 것 혹은 신체적 행위나 비난, 욕설, 언어적 폭력, 극단적인 모욕으로써 분노를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적절한 분노표출은 상대방에게 잘못을 알게 하여 관계를 개선시키는 적응적인 면도 있지만, 과도할 경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반사회적 행동을 유발시키거나 공격적인 행동과 적대감을 일으켜 문제해결을 방해하고(노세진, 2008), 대인관계를 손상시킬 수 있다(고윤경, 2007). 반면 분노억제는 화가 나 있지만 이를 걸음으로 드러내지 않는 것으로 자신의 분노를 자기 내부로 돌리거나 억압하는 것, 혹은 분노 유발상황과 관련된 사고와 기억 혹은 분노자체의 감정을 억압하거나 부정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역기능적인 분노표현 중 분노억

제는 신경증적 증상을 일으키는데, 도저히 견뎌낼 수 없다고 여겨지는 분노를 억제하는 동안에는 그것을 잊고 있다고 착각함으로써, 임시적으로 위안을 받을 수는 있지만 이러한 표현 방식은 이후 더 큰 심리적·사회적 부적응을 유발한다(고영건, 안창일, 2003). 예컨대, 분노 억제는 우울감과 편집증(이훈진, 2000), 절망감(Caution & Overholser, 2001), 섭식장애와 같은 심리적인 문제를 심화시키고, 자살의 위험성과도 연관되어 있다(Cautin et al, 2001; Zaitsoff, Geller, & Srikameswaran, 2002).

본 연구에서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개인의 심리 및 신체 그리고 대인관계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분노표현양식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그 기저에 있는 심리적 요인을 탐색하여 상담이나 임상장면에서 개인의 분노표현양식을 적응적으로 변화시키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3) 내현적 자기애와 분노표현의 관계

자기애 성향을 가진 사람은 자신에 대한 웅대한 표상을 가지고 있어 타인의 부정적인 평가에 과민하게 반응하여 분노와 보복 행동을 보인다(Bushman & Baumeister, 1998). 또한 친구들 간의 우연하고 사소한 비평들조차도 그들에게는 모욕에 기인하는 “폭발(blow-up)”을 유발할 수 있다(Beck, Freeman, & Davis, 2004). 이를 Kernberg(1975)는 ‘자기애적 분노’(narcissitic rage)라고 하였으며, 이것은 반복적이고 만성적으로 강한 분노 반응을 보이면서 무례한 요구와 비하적인 공격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자기애자들에 있어서 분노는 취약한 자기개념을 보호하려는 시도가 외현적으로 드러나는 과정이고, 그들의 자기보호전략을 실제 생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이준득, 2004), 자기애 성향자에게 분노는 중요한 정서 중 하나이다.

자기애 성향자는 자기개념이 취약하여 타인으로 부터의 부정적인 평가를 자기위협으로 인식하여 극도의 분노를 경험하거나,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았을 경우에 그것을 제공한 대상을 폄하하기 위해 분노를 표현함으로써 왜곡된 자기상을 보호한다(Baumeister, 1997). 그리고 그들은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존감을 손상당했을 경우 극도의 분노반응을 보임으로써 그 감정을 피하려고 한다(Chapman, Gratz & Brown, 2006).

이와 관련된 많은 연구들에서 자기애 성향과 분노는 정적 관계를 맺고 있음이 일관되게 지지되고 있으며, 특히 분노 표현은 자기애의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내현적자기애 성향을 보이는 사람들은 타인의 눈치를 많이 보며, 비난과 비판에 민감하기 때문에 분노를 억제하는 경우가 많다(나승은, 2009에서 재인용). 그러나 이들은 자기개념 명료성이 낮아 쉽게 분노를 경험하고, 더 공격적이다(이준득, 서수균, 이훈진, 2007). 또한 타인에 대한 공격성과 적대감이 높고(박세란, 2005), 내현적자기애 성향자가 외현적자기애 성향자에 비해 자기개념 명료성이 낮고, 더 우울하며, 적대감을 더 많이 느끼고,

일상적으로 더 많은 분노를 경험하지만 그 표현은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준득, 2004). 또한 자기애 유형에 따른 공격성을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인 측면에서 살펴본 백승혜(2004)의 연구에서는, 외현적자기애 성향자가 분노 경험수준이 높고 분노를 느낄 때 분노를 표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내현적 자기애 성향자는 외현적자기애 성향자보다 적대감이 높고, 분노를 느낄 때 분노억제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내현적자기애 성향자들은 분노를 자주 경험하지만, 그 표현을 억누르기 때문에 행동적으로는 드러나지 않고 만성적인 분노 상태에 머무르는 반면, 외현적자기애 성향자는 분노를 경험하는 즉시 그 분노를 표현하여 분노를 오래 유지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자기애와 분노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이 있지만 자기애의 하위유형인 내현적 자기애와 분노표현과의 관계에 대해 연구된 자료가 아직까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내현적자기애가 분노표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2. 내현적자기애와 분노표현의 관계에서 수치심의 매개효과

1) 수치심

수치심은 전체자기(entire self)가 문제시되는 경험으로, 자기에 장애, 중독, 섭식, 사회불안 등 다양한 심리장애의 핵심역동으로 간주된다(이인숙과 최해림, 2005). 수치심이란 자기에 대한 정서적 표상의 한 부분으로 ‘총체적인 자기를 검토한 결과, 부족하고 결핍되었으며, 부적절하고, 무력하고, 작다고 느껴지는 자아의식으로부터 생겨나는 고통스런 감정의 한 형태’로 정의된다(Kaufman, 1989; Tangney, Wagner & Gramzow, 1992; Wells & Jones, 2000). 수치심은 단순히 특정 상황에 대한 부끄러움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없어졌으면’ 하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갔으면’ 하는, 자기 존재에 대한 공허감과 부적절감을 포함하는 문제(이인숙 등, 2005)로 볼 수 있다. Lewis(1971)에 따르면, 수치심을 느끼는 사람은 자기에 대한 평가절하와 부정으로 인해, 자신을 바보 같고 유치하며 어리석거나 우스꽝스럽게 느껴 종종 숨거나 사라지고 싶어 한다. 모욕감과 분노를 느끼거나, 방어적으로 타인에게 잘못을 투사하고 비난하거나, 수치심을 보상하기 위해 오만한, 거만함, 뻔뻔스러움으로 외재화하기도 한다.

수치심은 그 자체가 병리적 정서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정적 정서로 인식되어 모호하게 다루어져 왔다. 이처럼 수치심의 모호함이 지속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수치심이 다른 많은 정서들과 관계가 있을 뿐 아니라 우울, 불안, 분노 등 여러 다른 정서의 모습으로 표현되기 때문이다.

수치심은 죄책감과 함께 오래 전부터 병인론적 정서로 인식되었지만, 이 두 정서의 개념이 주의 깊게 구별하지 않고, 같은 맥락에서 다루어져 왔다. 주로 죄책감에 초점을 두어 저술한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의 영향으로 인해 상

대적으로 수치심에 대한 연구는 간과되었다(강희천, 2000). 그러나 대부분의 이론가들은 실제 임상장면에서 나타나는 수치심과 죄책감의 현상학적 차이에 주목하고 있다. Lewis(1971)에 의하면, 수치심과 죄책감은 모두 부정적 정서를 포함하지만, 부정적 정서의 초점이 다르며, 서로 다른 현상학적 경험을 가져온다. 전형적으로 수치심은 어색함, 노출, 비웃음, 경멸의 경험으로 기술된다. 못마땅한 행동은 못마땅한 자기(self)의 반영으로 경험되고, 자기 전체에 초점이 맞춰진다. 반면에 죄책감은 어떤 특정 행동이나 행동의 실패에 그 초점이 맞추어지며, 자신의 행동은 자기(self)와 떨어져 평가되고, 그 결과로 양심의 가책이나 후회의 느낌을 낳는다(김현주, 2009 재인용).

Lewis(1971)가 수치심을 전체자기가 문제시되는 경험으로, 죄책감은 구체적 행동이 문제시되는 경험으로 구분한 이래, 다수의 연구들이 수치심과 죄책감과의 구분에 대한 연구로 이어졌다. 이들 연구를 통해 수치심은 우울이나 불안, 분노, 적개심, 복수심, 짜증, 타인을 비난하는 경향성, 평가에 대한 두려움 등 각종 성격 구성개념 및 정신병리 지표와 관련성이 입증된 데 비해, 죄책감은 이들 변인과의 관련이 나타나지 않았다. 또 대인관계에서 공감과 같은 긍정적인 변인과 관련하여 수치심은 부적인 상관을 보였지만 죄책감은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를 두고 연구자들은 수치심이 죄책감보다 병리적인 심리기제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으로 해석했다(남기숙, 2002).

수치심에 관한 이론들을 살펴보면, Piers와 Singer(1971)은 수치심의 정신내적 입장을 강조하면서, 수치심이 자아 이상과 자아 사이의 갈등으로 인해 생기며, 자아 이상의 기대에 도달하는 것에 실패할 때 나타난다고 한다. 따라서 수치심은 자신의 결점과 관련하여 생기는 정서이며, 실패와 연결되어 있다. 또한 자신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결핍상태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버림받지 않을까 하는 무의식적인 “버려짐” 위협에 대한 두려움에 의해 수치심이 발생한다. Erickson(1971)은 배변기에 부모가 아이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른 점진적인 자율성을 경험하는 것을 거부함으로써 생긴다고 보았다. 이때

아이는 스스로를 과잉조작해서 조숙한 양식을 발달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또 Lewis(1987)는 수치심의 가장 큰 원인은 사랑의 철회로, 자기를 자각할 수 있는 자의식의 발달이 전제되는 생후 18 ~ 36개월 사이에 출현하는 자의식적 정서로 수치심을 설명한다. Kafuman(1989)은 수치심이 자기에 대한 가장 고통스러운 경험이자 내면으로부터 만들어지는 상처라고 보고, 수치심이 한번 내면화 되면, 다양한 대인 관계적 상황에서 유발된다고 보았다. Nathanson(1992)은 수치심이 개인의 특성, 독립-의존, 경쟁, 자기감, 개인적 매력, 성적 관심, 노출과 관련된 문제, 친밀함에 대한 욕구와 공포를 지각하는데 관여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수치심은 자기의 능력에 대한 평가, 독립-의존의 문제, 성적 결합, 타인에게 노출되어 다 드러나 보이기 전에 도망가려는 충동, 관계가 가까워질 때 친밀해지고자 하는 욕구와 함께 사랑받을 자격이 없을 것 같이 느껴지면서 친밀감에 대한 공포를 수반하는 경험이라고 하였다.

2) 내현적자기애와 수치심의 관계

수치심이 자기애의 ‘감춰진 동반자’ (the veiled companion)라고 표현했듯이(Wurmser, 1987), 자기애적 특성들은 내면화된 수치심에 기초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내면화된 수치심이란, 자기를 총체적으로 검토해본 결과, 스스로를 부족하고 결핍되었으며, 부적절하고 무력하고 작다고 느끼는 자아의식으로부터 생겨나는 고통스런 감정의 한 형태를 의미하는데(Kaufman, 1989), 이로부터 자아를 보호하기 위한 기제가 바로 자기애라는 것(Nathanson, 1987)이다.

내면화된 수치심이 자기애 발달에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은 현재까지 경험적 연구들에 의해서 지지되었고(Gramzow & Tangney, 1992), 자기애와 수치심 취약성 간의 연결성은 여러 임상가와 이론가들에 의해 제안되어 왔다(Kernberg, 1970; Kohut, 1971; Kohut, 1977; Morrison, 1983). 이들은 수치심이 자기애에 있어서 중요한 정서적 경험중의 하나라고 밝혔다.

Morrison(1983)은 자기애적 성격에 있어서 수치심은 실패와 결점에 대한 정서적 반응이라고 정의하면서, 수치심의 이면에는 타인간의 관계에서 인정받고 수용 받고 칭송 받고 싶은 개인의 자기애적 욕구가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러한 자기애적 욕구가 좌절되었을 때 수치심의 정서경험이 유발된다고 하였다. 그러한 수치심의 경험은 그것을 경험하는 개인들로 하여금 더욱 자기애적 좌절에 대한 취약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으며, 그러한 불유쾌하고 고통스러운 정서를 유발시킬 수 있는 상황들을 가급적 차단하고 회피하려는 경향을 가지도록 한다고 하였다.

또한 자기애와 수치심 간의 관련성은 발달 초기의 양육 환경의 영향으로 설명되기도 한다. Kohut(1971)은 어린 시절 주요 양육자에 의해 적절한 반영(mirroring)과 정서적 조율이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 경험되는 정서가 수치심이라고 보았다. 이 경우 유아는 건강한 자기애적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자신의 욕구를 부끄럽게 여기게 되고, 병리적인 자기애로 발전하게 된다.

내현적자기애와 수치심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들에서, 김진순(2008)은 자기애 성향자들이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때 부정적 정서를 더 쉽게 경험하고 자존감이 손상되므로 부정적인 평가에 더욱 취약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외부의 반응에 민감하고 수줍음이 많으며 자기개념이 취약한 내현적자기애 성향자들이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을 때 낮은 자존감을 경험하여, 작아지고 위축되는 수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 한혜림(2004)의 연구에서 외현적자기애 경향성이 높을수록 수치심은 낮아지며, 내현적자기애 경향성이 높을수록 수치심 경향성은 높아진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이는 내현적자기애 성향자들이 자신을 중요한 존재로 타인에게 보여지기를 원하지만 자신의 모습이 어떻게 비추어지며 어떻게 받아들여지는가에 초점이 맞춰져있기 때문에, 자기애적 욕구가 좌절되는 상황에서 자신이 더욱 부적절하며 우스꽝스럽다는 수치심의 감정을 쉽게 경험하고 약간의 좌절과 타인의 평가에도 자기 가치감이 쉽게 동요되는 취약성을 보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또한 내면화된 수치심 척도의 타당화 연구(이인숙 외, 2005)에서, 수치심이 내현적자기애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청소년의 자기애와 우울증상의 관계에서 수치심의 매개효과를 연구한 곽진영(2009)은 내현적자기애 성향을 가진 개인이 외현적자기애 성향을 가진 개인보다 수치심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되고 이러한 수치심이 우울과 같은 취약요인을 유발할 가능성을 높인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 선행 연구들을 통해, 내현적자기애가 분노표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이 매개 효과를 지닐 것으로 가정하고 이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3) 수치심과 분노표현의 관계

수치심과 분노에 대한 연구는 Lewis, Miller 등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Lewis(1971)에 따르면, 수치심을 느끼는 사람은 자신이 작고 무기력하며 유치하다고 느끼게 되면서, 초기에 자신에게 향하던 적대감을 타인에게로 돌리게 된다고 한다. 즉, 자신에게 향하던 적대감이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향하게 되어 타인에게 적대감을 품게 되는 방식의 방어적 기제로 작용하게 된다는 것이다(김현주, 2009). 또한 수치심을 느끼는 개인은 스스로가 부당하게 대우받았다고 생각하고, 이런 인식은 또 다시 수치심을 유발하게 된다고 보았다(Lewis, 1971; 류설영 1999 재인용). Miller(1985)는 두 가지 단계의 수치심 - 분노 상호작용을 규정하였다. 처음에 분노가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그 분노에 대해서 수치심을 느끼게 되며, 지속되는 분노로 인한 수치심은 역으로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생각과 연결되면서 타인에 대한 분노를 유발하게 된다고 보았다.

수치심 경험은 분노각성과도 상관이 있어, 수치심 경향성이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보다 더 높은 수준의 분노를 경험한다(Tangney, Wagner & Gramzow, 1992). 또한 수치심 경향이 높은 사람은 공격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분노로 파괴적인 일을 하여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Tangney, Hill-Barlow, Wagner, Marschall, Borenstein, Sanftner, Mohr & Gramzow, 1996). 이렇게 수치심은 적대적, 공격적인 충동들을 제어하지 못해 비합리적이고 역효과적인 분노 반응을 일으키게 된다(Nathanson 1987; Retzinger, 1987; Scheff, 1987; Tangney, Wagner Fletcher, & Gramzow, 1992).

수치심과 다른 정서관계 연구에 비해 수치심과 분노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많지는 않지만 수치심이 다른 정서보다도 분노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는 것이 일관되게 지지되고 있다(류설영, 1999). 국내 연구에서도 류설영(1999)

이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 집단에서 수치심과 분노, 우울, 불안간의 정적 상관을 보였다고 보고하며, 장진아(2006)는 여성의 수치심이 높을수록 분노가 높아진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수치심이란 정서는 다양한 이차 정서(우울, 분노, 무기력)를 유발할 수 있는데 흔히 이차 정서들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감정이기 때문에 많은 경우 수치심이란 정서를 놓치기 쉽다. 또한 수치심이란 정서를 상담 장면이나 치료 장면에서 직면하는 것이 힘들고 다른 이차 정서들로 대신 직면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아직까지 수치심과 분노표현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런 측면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이차정서에 해당하는 분노표현과 개인이 느끼는 수치심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상담 장면이나 치료 장면에서 겉으로 드러난 이차 정서 기저에 자리 잡은 수치심을 다루는데 도움이 되 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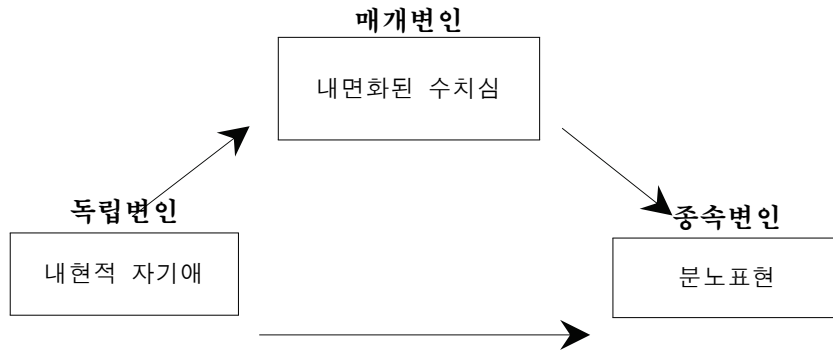
Ⅲ. 연구모형 및 연구문제

1. 연구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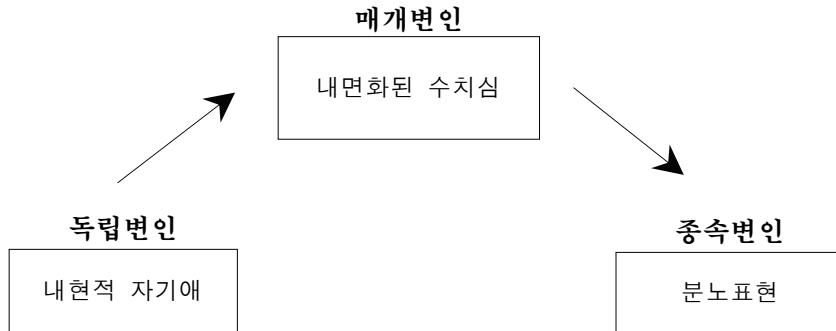
기존 선행연구들은 내현적자기애, 분노표현, 내면화된 수치심이 각각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밝혀왔지만 수치심을 매개로 내현적자기애가 분노표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검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를 검증하기 위해 부분매개모형을 가정하고 이를 연구모형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은 <그림1>과 <그림2>와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그림 2> 경쟁모형



2.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내현적자기애, 내면화된 수치심 그리고 분노표현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내현적자기애와 분노표현의 관계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이 매개하는가?

IV.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수도권에 위치한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남, 여 대학생 4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총 410부가 수거되었으나, 이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자료를 제외하여 총 381부의 설문지를 본 연구의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인	구분	N(=381)	백분율(%)
성 별	남	95	24.9
	여	286	75.1
학 년	1학년	74	19.4
	2학년	134	35.2
	3학년	103	27.0
	4학년	70	18.4

2. 측정도구

1) 내현적자기애척도

강선희와 정남운(2002)이 Akhtar와 Thomson(1982)의 ‘자기애적 성격장애의 임상적 특성’에 기초하여 개발한 척도이다. 총 45문항이며, 5점 리커트 척도 상에서 응답하도록 되어있다. 점수 범위는 45~22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내현적자기애의 성격 성향이 강함을 의미한다. 강선희 등(2002)은 요인분석을 통해 5개의 하위척도를 도출하였으며, 이를 외현적자기애와 내현적자기애의 공통요인과 내현적자기애만의 고유요인으로 분류하였다. 공통요인 2개는 인정욕구/거대 자기환상(9문항)과 착취/자기중심성(9문항)이고, 내현적자기애의 고유요인 3개는 목표불안정(9문항), 과민/취약성(10문항), 소심/자신감 부족(8문항)이다. 강선희(2002)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하위요인의 순서대로 .89, .81, .74, .80, .77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내현적자기애 척도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는<표 3>과 같다.

<표 3> 내현적자기애 척도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번호	신뢰도
목표불안정	5, 15, 20*, 23, 29, 30, 37*, 42, 44 (9문항)	.90
인정욕구/거대자기 환상	2, 6, 7, 13, 17, 24, 33, 38, 43 (9문항)	.78
착취 /자기 중심성	4, 9, 11, 12, 16, 22, 27, 35, 45 (9문항)	.76
과민/취약성	3, 8, 10, 14, 19, 25, 26, 31, 36,40 (10문항)	.80
소심/자신감 부족	1, 18, 21, 28, 32, 34*, 39, 41 (8문항)	.75
전체	45 문항	.90

*는 역채점

2) 분노표현척도

Spielberger, Krasner, Solomon(1988)이 개발한 상태-특성 분노 표현 척도를 전경구, 한덕용, 이장호와 Spielberger(1997)이 한국판으로 개발하였다. 이 중 본 연구 목적에 맞게 상대분노와 특성분노를 제외한 분노표현 척도만 사용하였다. 분노가 행동화 하는 방식인 분노표현양식은 분노표출(anger-out), 분노억제(anger-in), 분노조절(anger-control)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하위요인은 8문항씩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있고, 4점 리커트 척도 상에서 응답하도록 되어있다. 점수 범위는 24~96점으로, 점수가 낮을수록 분노에 대한 적절한 조절을 의미한다. 전경구 등(1997)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하위요인 순서대로 .73, .78, .79 였으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하위요인의 순서대로 .80, .79, .83, 전체 신뢰도는 .73이었다. 분노표현 척도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는 <표 4>와 같다.

<표 4> 분노표현 척도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번호	신뢰도
분노 표출	2, 7, 9, 12, 14, 19, 22, 23 (8문항)	.80
분노 억제	3, 5, 6, 10, 13, 16, 17, 21 (8문항)	.79
분노 조절	1, 4, 8, 11, 15, 18, 20, 24 (8문항)	.83
전체	24 문항	.73

3) 내면화된 수치심

본 척도는 1984년에 이루어진 Ehrich의 내면화된 수치심 예비연구를 바탕으로 Cook(1987)이 만든 자기보고식 질문지로, 1989년부터 사용되고 있다. 이 척도는 총 30문항이며, 하위요인은 부적절감, 공허, 자기처벌, 실수 불안, 자존감으로 구성되어있다. 수치심을 측정하는 24문항과 6개의 자존감 문항으로 구성되어 5점 리커트 척도 상에서 응답하도록 되어있고, 자존감 6문항은 문항이 같은 방향으로 주어져 있을 경우 한 방향으로 응답하려는 경향을 제어하기 위해 Rosenberg 자존감 척도의 6문항을 포함시킨 것이다. 수치심 점수는 자존감 문항을 제외한 24문항의 합계로 측정된다. 이인숙과 최해림(2005)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93으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하위요인의 순서대로 .90, .87, .74, .65, 전체 신뢰도는 .93이었다. 내면화된 수치심 척도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는 <표 5>와 같다.

<표 5> 내면화된 수치심 척도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번호	신뢰도
부적절감	1, 2, 3, 5, 7, 8, 10, 11, 12, 24 (10문항)	.90
공허	23, 26, 27, 29, 30 (5문항)	.87
자기처벌	15, 17, 20, 22, 25 (5문항)	.74
실수불안	6, 13, 16, 19 (4문항)	.65
전 체	30문항	.93

자존감 문항(4,9,14,18,21,28)은 측정하지 않음

3.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16.0과 AMOS 7.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내현적자기애, 내면화된 수치심, 분노표현방식의 관계를 살펴보기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서 세운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V. 연구결과

1. 주요 변인간의 상관관계

주요 변인들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6>에 제시하였다. 먼저 분노억제와 다른 변인들과의 상관을 살펴보면, 분노억제는 내현적자기애의 하위요인인 목표불안정($r=.21$), 인정욕구/거대자기환상($r=.25$), 착취/자기중심성($r=.37$), 과민/취약성($r=.52$), 소심/자신감 부족($r=.46$)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분노억제와 내면화된 수치심의 하위요인인 실수불안($r=.51$), 자기차별($r=.47$), 공허($r=.37$), 부적절감($r=.47$)과도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내현적자기애와 내면화된 수치심 수준이 높을수록 분노억제가 높아짐을 나타낸다.

둘째, 분노표출은 내현적자기애의 하위요인인 목표불안정($r=.17$), 인정욕구/거대자기환상($r=.15$), 착취/자기중심성($r=.38$), 과민/취약성($r=.21$), 소심/자신감 부족($r=.17$)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분노표출과 내면화된 수치심의 하위요인인 실수불안($r=.14$), 자기차별($r=.11$), 공허($r=.16$), 부적절감($r=.25$)과도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분노억제 결과와 마찬가지로, 내현적자기애와 내면화된 수치심 수준이 높을수록 분노표출이 높아짐을 나타낸다.

셋째, 내현적자기애는 내면화된 수치심의 하위요인인 실수불안($r=.66$), 자기차별($r=.55$), 공허($r=.51$), 부적절감($r=.66$)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넷째, 내면화된 수치심은 내현적자기애의 하위요인인 목표불안정($r=.44$), 인정욕구/거대자기환상($r=.30$), 착취/자기중심성($r=.40$), 과민/취약성($r=.75$), 소심/자신감 부족($r=.52$)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다섯째, 분노조절은 내현적자기애 하위요인인 인정욕구/거대자기환상, 소

심/자신감 부족과 수치심의 모든 하위요인들과 유의미한 상관이 없었으며, 나머지 변인들과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

<표 6> 주요 변인간의 상관관계

(N=381)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	1														
2	.173**	1													
3	.225**	.364**	1												
4	.402**	.470**	.413**	1											
5	.413**	.204**	.238**	.584**	1										
6	.694**	.605**	.622**	.832**	.696**	1									
7	.297**	.499**	.299**	.677**	.543**	.659**	1								
8	.303**	.243**	.331**	.615**	.489**	.548**	.547**	1							
9	.308**	.217**	.345**	.556**	.344**	.515**	.437**	.704**	1						
10	.480**	.205**	.352**	.681**	.496**	.656**	.541**	.683**	.648**	1					
11	.439**	.304**	.397**	.746**	.517**	.703**	.685**	.860**	.843**	.914**	1				
12	.211**	.252**	.365**	.517**	.456**	.511**	.505**	.470**	.371**	.465**	.526**	1			
13	.167**	.145**	.378**	.213**	.166**	.270**	.138**	.112**	.157**	.250**	.213**	.219**	1		
14	-.145**	-.078	-.210**	-.137**	-.029	-.177**	.025	.039	-.008	-.098	-.034	-.085	-.543**	1	
15	.167*	.222*	.376**	.414**	.315**	.423**	.456**	.423**	.357**	.428**	.485**	.781**	.491**	.202**	1
평균	24.31	30.49	21.96	28.49	23.30	128.55	12.92	12.17	12.63	22.88	60.60	23.62	20.77	26.83	71.22
표편	7.27	4.97	5.21	6.38	5.00	20.0	2.75	3.79	4.73	7.39	15.89	5.54	5.54	5.11	8.08

1. 목표불안정 2. 인정욕구/거대자기환상 3. 착취/자기중심성 4. 과민/취약성 5. 소심/자신감 부족 6. 내현적자기애 총점

7. 실수불안 8. 자기치별 9. 공허 10. 부적절감 11. 내면화된 수치심 총점 12. 분노억제 13. 분노표출 14. 분노조절

15. 분노표현 총점 * $p < .05$ ** $p < .01$

2. 구조방정식 모형

본 연구에서는 내현적자기애와 분노표현의 관계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을 매개변인으로 설정하고 AMOS(Analysis of Moment Structure) 16.0을 통해 구조모형검증을 실시하였다. 이때 내현적자기애 하위요인인 인정욕구/거대자기환상, 소심/자신감 부족과 수치심의 모든 하위요인들이 분노조절과의 상관이 유의미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노조절을 제외하였다.

1) 내면화된 수치심 매개모형

(1) 모형 비교와 적합도

구조방정식 모형을 분석할 때 흔히 사용하는 방법에는 하나의 모형을 제시하고 수정지수(MI: Modification Index)와 CR(critical ratio)값을 고려하여 최종 모형을 확정하는 단일모형 평가방법과 이론적으로 가능한 모든 모형을 제시하고 서로 적합도 지수를 비교하여 가장 해석하기 용이하고 자료와 잘 맞는 모형을 최종모형으로 선택하는 경쟁모형 방법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내현적자기애와 분노표현에 대한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경쟁모형 방법을 사용하여 부분매개모형과 완전매개모형을 각각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으로 하고, 모형 간 비교를 통해 매개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지, 혹은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는지 분석하였다.

χ^2 검증은 경쟁모형이 연구모형에 내포되어 있는 경우 모형비교를 위한 검증을 하는 것으로, 각 모형들의 자유도와 χ^2 값이 증가 혹은 감소됨에 따른 유의도 수준을 비교하여 최종모형을 선택하는 방법이다. 이 때 유의도 수준 $\alpha = .05$ 수준에서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이 차이가 없다는 영가설을 기각

하기 위해서는 자유도 1차이가 3.84.이상의 χ^2 차이를 가져와야 한다. 이때 두 모형간의 χ^2 차이가 유의미하면 자유도가 작은 모형을 선택하게 된다. 반면, 두 모형의 χ^2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으면 두 모형의 합치도가 유사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렇게 두 모형 간 합치도 차이가 없을 때에는 “간결의 원칙”에 의하여 더 간단한 모형, 즉 자유도가 더 큰 모형이 선호된다.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특정 모형이 실제 자료와 부합되는 정도를 검증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χ^2 검증을 할 수 있지만 χ^2 은 표본 크기에 비교적 민감하여 표본크기가 커질수록 모형을 쉽게 기각하는 문제점이 있다(홍세희, 2000). 따라서 모형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홍세희(2000)가 제안한 적합도 지수인 GFI, CFI, TLI, RMSEA를 사용하였다. GFI, CFI, TLI는 .90이상이면 모형이 좋은 적합도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고, RMSEA는 <.05이면 좋은 적합도, .05~.08사이의 값은 괜찮은 적합도, .08~.10 사이일 때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간주된다.

내현적자기가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를 통해 분노표현에 영향을 준다고 가정한 매개모형을 검증한 결과, 각 경로에서 경로계수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이었다. 하지만 모형 적합도는 $\chi^2=342.9$, $p<.05$ 이고, GFI=.856, TLI=.788, CFI=.838, RMSEA=.137로 모든 적합도 지수가 적합성 기준 수치이하로 나타나고 있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측정변인의 오차를 참고하여 유의미한 수준의 잔차 간 상관을 연결하였다. 모형의 잔차 간 상관을 포함시킨 후의 연구모형(부분매개모형)과 경쟁모형(완전매개모형)을 비교한 적합도를 <표 7>에 제시하였다. 우선, 부분매개모형인 연구모형과 완전매개모형인 경쟁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해보면, 연구모형과 경쟁모형 모두 GFI, CFI, TLI가 .90 이상이고, RMSEA도 .80~.10 사이의 값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수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고, 연구모형과 경쟁모형 간 적합도 지수상의 차이가 만족할 만큼 크지 않았다. 이에 서로 내포(nested)관계에 있는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차이 규명

을 위해, χ^2 값을 비교한 결과,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χ^2 차이값은 65.4($df=1$)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자유도 값이 더 작은 경쟁모형(완전매개모형)이 더 적합한 것으로 채택되었다. 이는 내현적자기애가 분노표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고, 내면화된 수치심을 통해 간접적으로만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7> 내면화된 수치심 매개모형 적합도 분석결과

모형	χ^2	df	GFI	TLI	CFI	RMSEA
연구모형 (부분매개모형)	187.6	32	.916	.917	.916	.090
경쟁모형 (완전매개모형)	122.2	31	.945	.913	.951	.088

(2) 모형에 나타난 경로계수와 매개효과

내현적자기애와 분노표현의 관계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 검증 결과, 완전매개모형인 경쟁모형이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모형에 대한 경로검증 결과는 <표 8>에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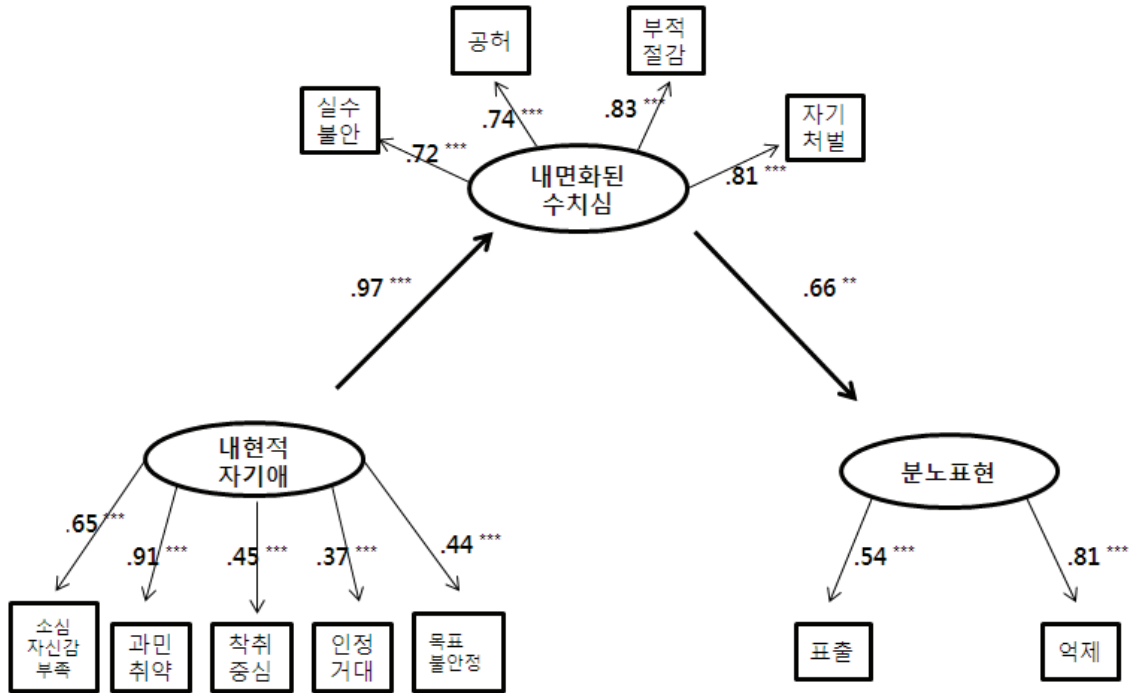
<표 8> 경쟁모형 경로검증 결과

변인	비표준화 계수	S.E	C.R	표준화 계수
수치심 ← 내현적자기애	.63	.052	12.186***	.97
분노표현 ← 수치심	.54	.143	3.754**	.66

** $p < .01$ *** $p < .001$

경쟁모형의 경로검증을 살펴보면, 내면화된 수치심이 내현적자기애와 분노표현의 관계에서 완전매개효과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경쟁모형 내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이 매개역할을 하게 되면, 내현적자기애가 분노표현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는 줄어들고, 간접적인 효과만 유의하게 존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쟁모형방법을 통해 더 적합하다고 채택된 완전매개모형(경쟁모형)을 <그림 3>에 제시하였다. 이는 내현적자기애와 내면화된 수치심이 정적 관계에 있으며, 내면화된 수치심이 높을수록 역기능적인 분노표현, 즉 분노표출과 분노억제도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매개효과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Sobel검증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였다. 내현적자기애와 분노표현 사이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는 Z_{ab} 값이 3.587로 측정되어 매개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 내현적자기애, 내면화된 수치심, 분노표현의 완전매개모형(경쟁모형)



p< .01 * p< .001

(3) 변인들 간의 직접, 간접 효과

매개모형에서 예언변인이 결과변인을 설명하는 효과는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예언변인에서 결과변인으로 바로 가는 경로의 직접효과(direct effect)와 예언변인이 매개변인을 거쳐 결과변인으로 가는 간접효과(indirect effect)로, 이를 매개효과라고 한다. 본 연구에서는 매개효과 검증을 알아보기 위해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알아보았고, 그 결과는 <표 9>에 제시되었다.

<표 9> 변인들 간의 직접, 간접 효과

변인	전체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수치심 ←내현적자기애	.971	.971	.000
분노표현←내현적자기애	.726	.000	.726
분노표현←수치심	.748	.748	.000

그 결과를 살펴보면, 내현적자기애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으로 가는 경로의 전체효과는 .971로, 내면화된 수치심에 내현적자기애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내면화된 수치심에서 분노표현으로 가는 경로의 전체효과는 .748로, 내면화된 수치심 역시 분노표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분노표현에 대한 내현적자기애의 직접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내현적자기애가 매개변인인 내면화된 수치심을 매개로 하여 종속변인인 분노표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V. 논 의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내현적자기애와 분노표현의 관계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를 요약하고, 이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구조방정식을 통한 모형검증 이전에 각 변인들 간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내현적자기애 및 분노표현과 내면화된 수치심은 정적상관을 보였다. 이때 분노표현의 하위유형 중 분노조절은 내현적자기애 하위요인(목표불안정, 착취/자기중심성, 과민/취약성)과 부적상관이 나타났다. 이것은 내현적자기애가 높을수록 분노조절에 있어 취약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반면 분노조절은 나머지 내현적자기애 하위요인(인정욕구/거대자기환상, 소심/자신감 부족)과 내면화된 수치심 그리고 그 하위요인과는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내현적자기애가 높을수록 내면화된 수치심이 더 높고, 분노억제나 분노표출처럼 역기능적인 분노표현을 많이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내현적자기애 성향자가 분노를 느낄 때 분노를 억압하기도 하지만 분노를 표출하기도 한다는 백승혜(2004)와 이준득(2005)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내현적자기애가 타인의 눈치를 보며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비판과 비난에 예민하기 때문에 분노를 느끼더라도 이를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하며, 상대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억압하고 있다가 부적절하게 충동적으로 표출하는 경향이 있다는 선행연구들을 지지하는 결과이다(나승은, 2009; 서수균, 2004; Cooper, 1998). 그리고 본 연구의 상관분석 결과에서, 내현적자기애와 수치심이 정적상관을 보인 것은, 내현적자기애 경향성이 높을수록 수치심이 높아진다고 보고한 한혜림(2004)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이는 내현적자기애 경향이 높을수록 자신이 중요한 존재로서 타인에게 보여 지기를 원하지만 자신의 모습이 어떻게 비추어지며 어

떻게 받아들여지는가에 초점이 맞춰져있기 때문에, 자기애적 욕구가 좌절되는 상황에서는 자신이 더욱 부적절하며 우스꽝스럽다는 수치심의 감정을 쉽게 경험하고 약간의 좌절과 타인의 평가에도 자기 가치감이 쉽게 동요되는 취약성을 가지기 쉽다는 이론적 견해(Morrison, 1983)를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마지막으로 수치심과 분노표현의 상관분석 결과, 수치심이 분노표출과 분노억제와 정적 상관을 보였고, 분노조절과는 유의미한 상관을 나타내지 않았다. 즉 수치심이 높아질수록 분노억제나 분노표출과 같은 부적응적인 방식으로 분노표현을 많이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와 같은 결과는 김현주(2009)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둘째, 내현적자기애와 분노표현간의 관계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가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해 부분매개모형을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완전매개모형을 경쟁모형으로 설정하여, 이를 비교함으로써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내면화된 수치심이 내현적자기애와 분노표현의 관계를 완전매개하는 경쟁모형이 채택되었다. 이는 내현적자기애가 분노표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내현적자기애 성향이 높을수록 내면화된 수치심을 유발하고, 내면화된 수치심은 하나의 취약요인으로서 작용하여 역기능적인 분노표현인 분노억제나 분노표출을 유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자기애적성향자가 분노를 경험할 때 수치심이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적, 경험적 연구를 뒷받침해주는 결과이다(Tangney, 1996).

본 연구의 제한점과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수도권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성별 비율이 편향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를 일반화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하여 교차타당화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 측정방법과 관련된 제한점이 있다. 본 연구의 자료는 자기보고형식에 의해 얻어졌기 때문에 후속연구에서는

면접연구나 질적 연구를 통해 이러한 제한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내현적자기애의 취약요인으로서 내면화된 수치심을 살펴보았지만, 후속연구에서는 취약요인이 아닌 적응적인 방향을 이끌 수 있는 기능적인 매개요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자기애와 분노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이 있지만, 자기애의 하위유형인 내현적자기애와 분노와의 관계, 특히 내현적자기애성향이 분노에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관한 분노표현방식과 관련된 연구들은 미흡한 실정이다. 기존 선행연구들은 내현적자기애와 분노와의 관련성을 밝히는 데 초점을 두었을 뿐, 무엇이 내현적자기애와 분노표현을 매개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지 못했다. 이에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다양한 이차정서(우울, 분노, 무기력)들이 표면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놓치기가 쉬운 심리적 기제인 내면화된 수치심을 매개변인으로 설정하여,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 그 경로를 확인하여 내현적자기애와 분노표현 간의 관계성을 보다 정교화시킴으로써 기존 선행연구를 확장했다고 볼 수 있다. 즉, 내면화된 수치심을 매개로 하였을 때 내현적자기애 성향자들의 분노표현은 더욱 큰 영향력을 가지게 된다는 연구 결과를 통해, 상담이나 임상장면에서 내현적자기애 성향자들이 분노 자극에 대응하는 분노표현방식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겠다. 또한 수치심 경향성을 고려하여, 이들이 수치심을 자각하고 이를 표현하며 수용할 수 있는 치료적 개입과 자기애에 대한 긍정적인 정서를 발달시키는 상담전략을 통해 수치심을 감소시킴으로써 부적응적인 분노표현을 적응적인 방식으로 이끄는 데 효과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참 고 문 헌

- 강선희, 정남운 (2002). **내현적 자기애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강희천(2001). **종교심리와 기독교 교육**. 서울: 대한 기독교서회.
- 고용권, 안창일(2003). **MMPI와 로샤검사를 이용한 분노의 억압 평가**.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8(1), 185-207.
- 고윤경(2007). **분노표현태도와 대인관계문제: 분노표현방식의 매개효과**.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곽진영(2006). **청소년의 자기애와 우울증상의 관계에서 수치심의 매개효과**.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권은미(2006). **내현적 자기애가 사회공포증에 미치는 영향-사회적 자기 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아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길주현, 오경자(2008). **자기애의 세부특성과 자기개념 명확성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7(4), 911-924.
- 김소연(1998). **특성분노와 분노표현이 심장혈관 반응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현주(2009). **청소년의 애착유형과 분노표현의 관계-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 성신여자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효주(2010). **자기애 성향자들의 명시적 암묵적 자존감과 공격성의 관계**. 카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나승은(2009). **모애착과 또래애착, 내현적자기애가 청소년의 분노 표현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남기숙(2002). **정신건강과 관련하여 수치심과 죄책감의 구분문제**. **심리과학**, 11(1), 35-52.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심리과학연구소.

- 노세진(2008). **고등학교 운동선수들의 분노표현양식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류철영(1989). **대인관계 상황에서의 죄책감, 수치심과 심리적 증상의 관계연구; 일반 청소년과 비행 청소년의 비교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세란(2004). **외현적·내현적 자기애의 자기평가와 귀인양식**.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세란(2005). **외현적·내현적 자기애의 자기평가와 정서 특성**.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4(2)**, 255-266.
- 백승혜(2004). **내현적·외현적 자기애 성향자의 적대감, 분노경험수준 및 분노표현양식**.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서수균(2004). **분노와 관련된 인지적 요인과 그 치료적 함의**.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신희천(2007). **내현적 자기애가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에 미치는 영향: 경험회피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4)**, 967-982.
- 위혜정(2008). **완벽주의가 내현적자기애 성향에 미치는 영향**. 덕성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군자(2009). **내현적자기애와 사랑의 구성요소 및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만홍(1988). **나르시즘과 자기**. **정신치료, 2(2)**, 42-50.
- 이인숙, 최해림(2005). **내면화된 수치심 척도(ISS)의 타당화 연구-애착, 과민성 자기애, 외로움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3)**, 651-670.
- 이준득(2004). **내현적·외현적 자기애 성향자의 분노특성**.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준득, 서수균, 이훈진(2007). 내현적 외현적 자기에 성향자의 자기개념
명료성과 부정적 정서특성.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6(2), 463-477.
- 이춘희(2007). **내현적 자기에와 진로 미결정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카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훈진(2000). 분노표현양식과 편집증 및 우울의 관계. **한국심리학회: 건강**,
19(3), 427-438.
- 장진아(2006). **여성의 대상관계가 내면화된 수치심을 매개로 분노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전겸구(2000). 분노의 종합적 이해를 위한 시도. **한국미술치료학회**, 7(1),
1-31.
- 정혜연, 이정윤(2009). 청소년의 낙관성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 :
자기효능감과 스트레스 대처의 매개효과. **상담학 연구**, 10(4),
2367-2381.
- 최인희(2005). **청소년의 자기에 성향과 시험불안과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혜림(2004). **자기에가 사회 불안에 미치는 영향: 수치심 경향성을 매개
변인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홍세희(2000).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1980).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3rd ed)*. Washington DC: Author.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1994).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4th ed)*. Washington DC: Author.
- Akhtar, S., & thomson, J. A.(1982). Overview: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American Journal of American*, 139, 12-20.

- Baumeister, R. F.(1997). *Evil. Inside human violence and cruelty*. New York: W. H. Freeman and Company.
- Berkowitz, L.(1993). *Aggression: Its causes, consequences and control*. New York: McGraw - Hill.
- Bushman, B., & Baumeister, R. F.(1998). Threatened egotism, narcissism, self-esteem, and direct and displaced aggression: Does self-love or self-hate lead to viol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5, 219-229.
- Buss, A., & Perry, M.(1992). The aggression questionnai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3, 452-459.
- Cautin, R. L., Overholser, J. D., & Goetz, p.(2001). Assessment mode of anger expression in adolescent psychiatric inpatients. *Adolescence*, 36, 163-170.
- Chapman, A. L., Gratz, K. L., & Brown, M. Z.(2006). Solving the puzzle of deliberate self-harm: *The experiential avoidance model*. *Behavior Research and Therapy*, 44, 371-394.
- Cooper, A. M., & Ronningstam E.(1992).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In: Review of Psychiatry. vol. 11. ed A Tasman, MBRiba. Washington, DC/London: American Psychiatric Press. 80-97.
- Cooper, A.(1998). *Further developments in the clinical diagnosis of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In E. Ronningstam(Ed.), Disorder of narcissism: Diagnostic, clinical, and empirical implications(p.53-74), Washington, D. C. : American Psychiatric Press, Inc.

- Eckhardt, C. I., Norlander, B., & Deffenbacher, J. I. (2004). The assessment of anger and hostility: A critical review.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9*, 17-43.
- Erickson, E. H. (1971). Autonomy v. shame and doubt. In H. Morris (Ed.), *Guilt and Shame* (pp. 155-158). Belmont: Wadsworth Publishing Company.
- Freud, S. (1914/1953). *On Narcissism: An Introduction*. London: Hogarth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1914)
- Gramzow, R., & Tangney, J. P. (1992). Proneness to shame and the narcissistic personality.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8*, 469-376.
- Hendin, H. M., & Cheek, J. M. (1997). Assessing hypersensitivity narcissism: A reexamination of Murray's Narcissism Scale.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1*, 588-599.
- Kaufman, G. (1989). *The Psychology of shame: Theory and Treatment of Shame-Based Syndromes*. New York: Springer.
- Kernberg, O. F. (1975). *Borderline conditions and pathological narcissism*. New York: Jason Aronson.
- Kernberg, O. F. (1970). Factors in the Psychoanalytic treatment of narcissistic personalities. *Journal of the American Psychoanalytic Association, 18*, 51-85.
- Kohut, H. (1971). *The analysis of the self*. New York: Interpersonal Universities Press.
- Kohut, H. (1977). *The restoration of the self*.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Lasch, Christopher(1978). *The Culture of Narcissism*, New York: Norton.
- Lewis, H. B.(1971). *Shame and guilt in neurosis*.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Lewis, H. B. (1987). *Shame and narcissitic personality*, In D. L. The many faces of shame(pp. 133-161). New York: Guilford press.
- Martin, R, Watson, D., & Wan, C. K. (2000). A three-factor model of trait anger: dimensions of affect, behavior, and cognition. *Journal of Personality, 68*, 869-897.
- Morrison, A. P.(1983). Shame, the ideal self, and narcissism. *Contemporary Psychoanalysis, 19*, 295-318.
- Nathanson, D. L.(1987). *The many faces of shame*. New York: Guilford Press.
- Novaco R. W.(1979). A stress inoculation approach officer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5*, 327-346.
- Piers, G., & Singer, M. B. (1971). *Shame and Guilt*. New York: Norton. D. L. Nathanson(ED), The many faces of shame(pp. 133-161). New York: Guilford press.
- Raskin, R., Novacek, J.(1989). An MMPI description of the narcissistic personality.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3*(1), 66-80.
- Rathvon, N., & Holmstrom, R. W.(1996). An MMPI-2 portrait of narcissism.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66*, 1-19.
- Retzinger, S. M. (1987). Resentment and laughter: Video studies of the shame-rage spiral. In H. B. Lewis (Ed.), *The role of shame in symptom formation (pp. 151-181)*. Hillsdale, NJ: Erlbaum.

- Rose(2002). The happy and unhappy faces of narcissism.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3*, 379-391.
- Scheff, T. J. (1987). The shame-rage spiral: A case study of an interminable quarrel. In H. B. Lewis (Ed.), *The role of shame in symptom formation(pp.109-149)*. Hillsdale, NJ:Erlbaum.
- Schlenker, B. R., & Leary, M. R. (1982). Social anxiety and self-focused atten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899-908.
- Spielberger, C. D., Johnson, E. H., Russell, S. F., Crane, J. C., Jacobs, G. A., & Worden, T. J.(1985). *The experience and expression of anger: Construction and validation of an anger expression scale*. In M. A. Chesney & R. H. Rosenman (Eds.), *Anger and hostility in cardiovascular and behavioral disorders* (pp. 5-30). New York: Hemisphere.
- Tangney, J. P., Wagner, P. & Gramzow, R.(1992). Proneness to shame, Proneness to guilt, and Psychopathology.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1*(3), 469-478.
- Tangney, J. P., Hill-Barlow, D., Wagner, P., Marschall, J. E., Borenstein, J. K., Sanftner, J., Mohr, T., & Gramzow, R.(1996). Assessing individual differences in constructive versus destructive responses to anger across the lifespa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 780-796.
- Wells, M., Jones, R.(2000). Childhood parentification and shame-proneness: Apreliminary study. *The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28*(1), 19-27.

Wink, P.(1991). Self- and object-relatedness in adult women. *Journal of Personality, 59*(4), 769-791.

Zaitsoff, S. L., Geller, J., & Srikameswaran, S.(2002). Silencing the self and suppressed anger: relationship to eating disorder symptoms in adolescent females. *European Eating Disorders Review, 10*(1), 51-60.

ABSTRACT

The Relationship between Covert Narcissism and Anger Expression : The Mediating Effects of Internalized shame

Jeoung, Mi Ra
Department of Psychology
The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s of internalized sham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vert narcissism and anger expression. Survey for this study was conducted to 381 University students in Metropolitan Seoul with Covert Narcissism Scale(CNS), Anger Expression Inventory-Korean Version(STAXI-K) and Internalized Shame Scale(IS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covert narcissism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anger expression and internalized shame. Second, the relationship analysis by Structural Equation Modeling(SEM) demonstrated that internalized shame was completely mediated the relation between covert

narcissism and anger expression. Finally, based on the results,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Key words : Covert Narcissism, Anger Expression, Internalized shame, Mediating Effect

부 록

부록 1. 내현적자기애 척도

부록 2. 분노 표현 척도

부록 3. 내면화된 수치심 척도

부록1. 내현적자기애척도

※ 본 조사는 통계법 제 8조에 의거하여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다음 각 문항들은 여러분이 자신에 대하여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측면들을 나열한 것입니다. 항목들을 하나씩 읽어가면서 자신이 해당된다고 생각되는 정도의 숫자에 ○ 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한 문항에 너무 오래 생각하지 마시고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는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중간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많이 보는 편이다	1	2	3	4	5
2	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나에게 잘 대해주기를 바란다	1	2	3	4	5
3	비판 받았을 때 나는 쉽게 굴욕감을 느낀다	1	2	3	4	5
4	나는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 마음을 증명해보이기위해서 나를 위해 많은 돈을 쓰기를 바란다	1	2	3	4	5
5	많은 고민을 했지만 아직도 인생의 목표에 대해서 갈피를 못 잡고 있다	1	2	3	4	5
6	나는 나를 내가 아닌 다른 어떤 유명한 사람처럼 그려보고 싶다	1	2	3	4	5
7	나는 다른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려고 너무 애쓰는 것 같다	1	2	3	4	5
8	나는 가끔 남의 비평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1	2	3	4	5
9	나는 다른 사람들이 부탁을 해올 때에 때때로 짜증이 난다	1	2	3	4	5
10	가족들 중에는 내가 이기적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1	2	3	4	5
11	나에게 즐거운 일이라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된다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는다	1	2	3	4	5

번호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는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중간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2	나는 다른 사람이 자기문제로 와서 내 시간을 요구하거나 공감해주기를 요구할 때 말은 못해도 괴롭고 귀찮다	1	2	3	4	5
13	나는 내가 잘 한일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란다	1	2	3	4	5
14	나는 종종 다른 사람들에게 열등감을 느낀다	1	2	3	4	5
15	나에게 미래는 막연하고 불확실하게 보인다	1	2	3	4	5
16	속기보다 차라리 남을 속이는 것이 좋다	1	2	3	4	5
17	나는 내게 부족한 것(예를 들면, 외모, 돈,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질투가 난다	1	2	3	4	5
18	때때로 나는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도 내 자신을 주장하지 못할 때가 있다	1	2	3	4	5
19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내 인생은 남들보다 불행한 일이 더 많은 것 같다	1	2	3	4	5
20	내 삶의 목표는 비교적 명확하다	1	2	3	4	5
21	나는 겁이 많고 소심한 사람이다	1	2	3	4	5
22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대접을 받아 자존심이 상했던 경우가 있다	1	2	3	4	5
23	나는 내가 하는 일에서 진정한 즐거움을 찾지 못하고 있다	1	2	3	4	5
24	나는 여러 가지 일에 모두 뛰어나기를 바란다	1	2	3	4	5
25	사람들이 나의 결점을 알아차릴 까 봐 두렵다	1	2	3	4	5
26	내가 보잘 것 없는 존재로 느껴질 때가 있다	1	2	3	4	5
27	필요하다면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사람들을 교묘하게 이용할 것이다.	1	2	3	4	5
28	나는 어떤 모임에 참석하든 항상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는 구석진 자리에 앉는 편이다	1	2	3	4	5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는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중간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29	나는 내가 다음에 무엇을 하게 될지 전혀 모르겠다	1	2	3	4	5
30	직업을 통해 내가 무엇을 추구해야 할이지 잘 모르겠다	1	2	3	4	5
31	나는 창피스러운 일을 당하면 두고두고 생각하며 괴로워하는 편이다	1	2	3	4	5
32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에 비해 활기가 적은 편이다	1	2	3	4	5
33	나는 사람들이 왜 나의 장점을 좀 더 알아주지 않는지 의아하게 생각한다	1	2	3	4	5
34	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이나 친하지 않은 사람 앞에서도 별로 긴장하지 않는다	1	2	3	4	5
35	나는 나에게 특이 될 때만 '공평한 원칙' 을 지킨다	1	2	3	4	5
36	나는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조차도, 종종매우 외롭고 불편하다	1	2	3	4	5
37	나는 지금 내가 하는 일에 만족을 느낀다	1	2	3	4	5
38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주목하고 높이 평가해 주었으면 좋겠다	1	2	3	4	5
39	나는 혼자서는 결정을 잘 내리지 못하는 것 같다	1	2	3	4	5
40	요 며칠 동안 나는 계속 슬프고 우울했는데, 쉽게 이런 기분이 나아질 것 같지 않다	1	2	3	4	5
41	누군가가 보고 있는 자리에서 일하는 것은 아주 힘이든다	1	2	3	4	5
42	나는 일의 의미를 찾기가 어렵다	1	2	3	4	5
43	항상 다른 사람들로 부터 인정받고 지지받고 싶다	1	2	3	4	5
44	나의 문제는, 내가 무엇이 되고 싶은지를 정말 모른다는 것이다	1	2	3	4	5
45	기회만 된다면, 나는 죄책감 없이 다른 사람들을 이용할 것이다	1	2	3	4	5

부록2. 분노표현척도

다음의 각 문항을 읽고 화가 났을 때 자신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각되는 숫자에 ○ 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자신이 해본 경험이 없는 질문에 대해서는 자신이 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번호	화가 났을 때 나는?	전혀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거의 항상 그렇다
1	나는 화를 참는다	1	2	3	4
2	나는 화난 감정을 표현 한다	1	2	3	4
3	나는 말을 하지 않는다	1	2	3	4
4	나는 사람들에게 인내심을 갖고 대한다	1	2	3	4
5	나는 똥해지거나 토라진다	1	2	3	4
6	나는 사람들을 피한다	1	2	3	4
7	나는 소리를 지른다	1	2	3	4
8	나는 냉정을 유지 한다	1	2	3	4
9	나는 문을 쾅 닫아버리는 식의 행동을 한다	1	2	3	4
10	나는 상대의 시선을 피한다	1	2	3	4
11	나는 나의 행동을 자제한다	1	2	3	4
12	나는 사람들과 말다툼을 한다	1	2	3	4
13	나는 아무에게도 말하지는 않으나, 안으로 앙심을 품는 경향이 있다	1	2	3	4
14	나는 목소리를 높인다	1	2	3	4
15	나는 화가 나더라도 침착하게 자제할 수 있다	1	2	3	4
16	나는 속으로 다른 사람을 비판한다	1	2	3	4
17	나는 나 자신이 인정하고 싶은 것보다 화가 더 나 있다	1	2	3	4
18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진정이 빨리 된다	1	2	3	4
19	나는 욕을 한다	1	2	3	4
20	나는 참고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1	2	3	4
21	나는 다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분통이 더 나 있다	1	2	3	4
22	나는 자제심을 잃고 화를 낸다	1	2	3	4
23	나는 화난 표정을 짓는다	1	2	3	4
24	나는 화난 감정을 자제한다	1	2	3	4

부록3. 내면화된 수치심 척도

다음의 문항은 자신에 대해 경험하고 있거나 느끼는 것과 관련된 것입니다. 문항을 잘 읽어보시고 자신과 일치하는 정도에 해당하는 숫자에 ○ 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문제에는 옳고 그른 답이 없습니다. 어느 한 문항에 너무 오래 생각하지 마시고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보통 이다	자주 그렇다	거의 항상 그렇다
1	나는 스스로 꽤 괜찮다고 느낀 적이 없다	1	2	3	4	5
2	나는 어쩐지 내쳐진 느낌이다	1	2	3	4	5
3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고 느낀다	1	2	3	4	5
4	나는 대체로 내가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1	2	3	4	5
5	나는 스스로를 비웃고 자신을 얕본다	1	2	3	4	5
6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불안하다	1	2	3	4	5
7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나는 결코 이상(기대)에 부합하지 못한다고 느낀다	1	2	3	4	5
8	나는 내 자신이 매우 보잘 것 없이 느껴진다	1	2	3	4	5
9	나에게는 자랑스러워 할 점이 많은 것 같다	1	2	3	4	5
10	나는 부적절함을 강하게 느끼고 자신에 대한 회의로 가득 차 있다	1	2	3	4	5
11	나는 기본적으로 잘못된 어떤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인간으로서 뭔가 결함이 있는 것 같다	1	2	3	4	5
12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나는 그들만큼 중요하지 않다.	1	2	3	4	5
13	다른 사람 앞에서 내 결점이 드러나는 것이 나는 아주 무섭다	1	2	3	4	5
14	나에게 많은 장점이 있다고 느낀다	1	2	3	4	5
15	나는 완벽을 추구하지만 늘 부족함을 볼 뿐이다	1	2	3	4	5

번호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보통 이다	자주 그렇다	거의 항상 그렇다
16	다른 사람이 내 결점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1	2	3	4	5
17	나는 실수를 하면 몽둥이로 내 자신의 머리를 내려치고 싶다	1	2	3	4	5
18	대체로 나는 내 자신에 대해 만족한다	1	2	3	4	5
19	실수를 하면 나는 움츠려 드는 것 같다	1	2	3	4	5
20	나는 고통스러운 사건을 마음속에서 반복적으로 생각해서 결국 압도되고 만다	1	2	3	4	5
21	다른 사람과 똑같이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1	2	3	4	5
22	때로 내가 수천조각으로 부서질 것 같이 느껴진다	1	2	3	4	5
23	나는 내 신체와 감정에 대한 통제감을 잃어버린 것처럼 느껴진다	1	2	3	4	5
24	때로 나는 콩알처럼 아주 작게 느껴진다	1	2	3	4	5
25	때로 내가 노골적으로 드러난 것 같을 때 땅이 열려 나를 삼켜버렸으면 싶다	1	2	3	4	5
26	내 안에는 내가 채울 수 없는 고통스러운 괴리가 있다	1	2	3	4	5
27	나는 공허하고 채워지지 않음을 느낀다	1	2	3	4	5
28	나는 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1	2	3	4	5
29	나의 외로움은 텅 빈 공허감과 같다	1	2	3	4	5
30	나는 뭔가 있어야 할 것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다	1	2	3	4	5